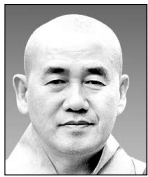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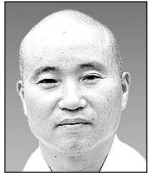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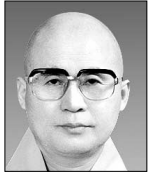
일주문



도산사 국대민안법회서 법문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법 스님은 3월 30일 서울 도선사가 주최한 '국대민안 기원 대법회'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 (02)993-3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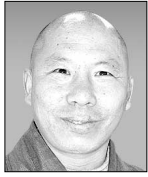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선학회장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3월 20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덕암세미나실에서 '3월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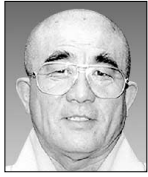
부산시 불족위 26일 결성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 스님은 3월 26일 오후 6시 30분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불기2548년도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불족위원회 결성 법회를 봉행한다.



광주불교대학 6대 학장에 취임
광주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은 3월 13일 향림사 불교회관에서 열린 제14기 입학식에서 제6대 광주불교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삼성각 평화 봉안 법회
나주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은 3월 30일 최근 불사를 회향한 미륵사 삼성각 평화 봉안을 기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한다. (061)331-3436



양산사양연 3대 회장에
양산 광천사 주지 무호 스님은 3월 10일 양산시 통도관광호텔에서 양산불교사암연합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일전통문화비교론' 출판기념회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홍윤석 교장은 3월 19일 서울 타워호텔 신관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교회 기념 <한일전통문화비교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서훈
부산 범어사 박승관 신도회장은 청소년 육성 및 교육부부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3월 18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창립 18주년 기념법회 봉행
한국전기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 정법회 신상용 회장은 3월 18일 수성구 운봉면 법당에서 창립 18주년 및 호출 개시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립 5주년 기념법회
우리은행 서울불자회 이탁수 회장(전 극금운당불자연합회장은)은 3월 20일 종로 회현동 은행본점 대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법 서원 되살려 재도약 할 것"

부산불교실업인회 8대 회장 김윤환 씨

산불교실업인회 제 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윤환(55·현암·사진) 영광도 대표는 '창립 정신 되살리기'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김회장은 "불법 홍보를 서원하며 창립 초창기 부산불교방송 유치, 불교병원 건립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창립 정신을 되살려 불자 실업인들이 재도약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 선결요건을 내실 다지기로 보고, 활동이 없는 초창기 회원들의 참여를 다시 이끌어내는 한편, 신규 회원 배가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또 "숙원사업이었던 '부산불교실업인회관' 건립이 성사되었으니 회관을 주춧돌로 삼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서점 경영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인정받아 온 김회장은 "150여명의 회원과 회원 부인으로 구성된 마야부인회와 함께 수행과 포교의 두 바퀴를 여법하게 굴리기 위해 정기법회, 사찰 순례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학교발전·자기수행이 공동 화두"

금강대 교직원불자회 권탄준 초대회장

"전태종 종립학교 교직원으로 있으면서도 바쁜 업무에 쫓기다보면 각종 실행, 수행, 봉사활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수록 기본에 충실한 불자가 되기 위한 자기수행이 필요합니다. 금강대 교직원불자회의 향후 활동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권 회장은 "전태종 종립대학인 금강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라는 자긍심을 키우고 '소수 정예 일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체 교직원을 대

만 불자회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교수 4명을 제외한 전 직원 54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불자회 활동이 학교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전태종 종립대학인 금강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라는 자긍심을 키우고 '소수 정예 일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체 교직원을 대



신해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금강대 교직원불자회는 회원들의 실행과 수행 지도를 담당할 지도부로서 세운 스님(금강대 총무처장)을 추대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무료법률상담 강화로 보살행 실천

사법연수원 35기 다름법우회 이성규 회장

"올 7·8월에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펼칩니다. 현재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2곳에만 제한된 봉사기관을 올해부터는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법연수원 35기 다름법우회 회장 이성규(39·공덕·사진) 씨는 3월 17일 일산 정혜사에서 봉행한 첫 법회에서 향후 법우회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봉사활동 기관을 다양화하고 활동시간도 늘려, 보살행을 몸으로 실천하는 예비 법조인 불자회로 만들겠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불교기초교



리 공부, 참선 실수 등 회원들의 불교 관심에 따라 소모임 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문화재청장에 노태섭 씨 승진 임명

정부는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문화재청 청장에 노태섭(사진)을 임명할 예정이다. 노태섭 청장은 행정 16회 출신으로 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예술국장 등을 두루 거치고, 2001년 4월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오유진 기자

"스승의 뜻이어 '큰불교' 이끌자"

탄허불교문화재단 취임·승진 축하법회



(앞줄 왼쪽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주)쌍용양회 명호근 대표이사 부회장,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국민대 김문환 총장, 김경욱 명성여교 교장 내정자, 김동진 서울고등법원장. 사진=고병태 기자

"한양, 탄허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오대산의 큰 기운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3월 15일 서울 진관사,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열·법조불교인회장이 연이은 탄허 문도회 스님과 재단 이사장의 승진과 취임 축하하는 법회에서 정법 스님(월정사 주지)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주인공들은 동국학원 이사장 문도회주위를 비롯해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국민대학교 총장에 선임된 김문환 교수(탄허재단 감사), 김동진 서울고등법원장(서초반야회장), (주)쌍용양회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한 명호근 이사(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명예회장), 명성여교 교장에 내정된 김경욱 이사 등 6명. 축하차 참석한 탄허문도회 스님 및 재단 인사 60여 명은 "탄허문중에 결정사가 났다"며 뿌듯해하며 "큰불교"를 이끄는 불제자가 되자"고 입을 모았다. 김철우 기자

교보생명 환경문화상 선정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새만금 방조제 건설 반대를 위해 지난해 65일간 '삼보일배(三歩一拜)'를 벌인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사진 왼쪽)과 문규현 신부가 3월 16일,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제6회 교보생명 환경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3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홍성훈·이은경·이세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는 신인 홍보대사에 탤런트 이세은(골수기증 부문)과 프로야구 선수 홍성훈(헌혈 부문), 전 국가대표 양궁선수 이은경(헌혈 부문) 등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위촉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전주교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이사장 김운회 주교, 김화중 트 이세은(골수기증 부문)과 프로야구 선수 홍성훈(헌혈 부문), 전 국가대표 양궁선수 이은경(헌혈 부문) 등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위촉식은 조계종 총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든지 생사해탈에 이룰수 있다
견성하기는 계란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쉽다.
밀을 깨뜨려 세우는데 서지않을 까닭이 있는가
제방을 돌며 이뒤편을 삼십년을 불려도 이뒤편 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그 이뒤편 찾는 놈이 자성임을 펴득 간파하여
눈치를 채면 공부를 마치는 것이다.
중생심과 보리심은 돌이 아니어서 내려놓거나 버릴것이 없다.
다만 평상심인 중생에 줄을 서느냐 생각에 기울어진 변두리에 줄을 서느냐일 뿐이다.
그러니 6일이면 과하고 3일이면 못할 것도 없다.
무아에 줄을선 수행자여!
생사해탈과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도 무아체득을 못했기 때문이고 무아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감정과 욕망에 끌려다니기때문이다.
감정과 욕망 분별심은 자성정정심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
평상심이 기울면 감정과 분별심이요 감정과 분별도 바로서면 평상심이다.
그러니 머리핀을 하나라도 결정을 해야되듯 번뇌와 욕망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해야 마음이 스스로 말을 들어주어 내려놓아지게된다.
따라서 밥먹고 잠자고 똥싸고 앉고 서고 보고 듣는 이놈이 자성 법신임을 펴득 간파하면 자타가 무너진다.
대상이 무너지고 내가없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것이 자성법신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면 견성이다.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다시 무명으로 떨어지고 인정이 되면 심장에 구멍이 뚫려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덮어 중생의 도장을 찍는다.
그러니 누구나 다하는 보고 듣는 마음을 법신이라 인정하는데 6일이면 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 왜 공부가 잘안되는지 꼭 꼭 짚어서 분석하여 쉽고 빠른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해줍니다.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천번의 공정을 아물때고 몇 스러온 등', 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풀칠 상태 (풀칠 및 인쇄없이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엔텍
■ 농협 415051-51-000075 예금주:(주)국민피엔텍